

도립대, 디자인 문화대전 3년 연속 수상 동강대-육군3사관학교 상생 첫 걸음



제품디자인 금상... 49점 전원 수상

전남도립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제41회 대한민국 디자인문화대전'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출품작 49점이 모두 수상해 3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사진> 금상을 수상한 고가현(산업디자인과 2년)씨 작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키보드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디자인으로 충돌 시 측면 윙(Wing)에서 에어백이 터져 탑승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

신선한 아이디어와 미려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다. 고가현씨는 "공모전 참가를 통해 디자인에 자신감도 얻었고 졸업 후 큰 경력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밖에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웹디자인 등 각 부문에서 특선과 입선 등 출품자, 출품작품 모두가 수상 영광을 안아 현장실무 중심 취업 명문대학임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디자인문화대전은 1977년 시작해 올해 41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Award)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학군교류 협약대학 초청행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으로 육군3사관학교와 상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최근 경북 영천에서 육군3사관학교장(소장 방성대) 주관으로 학군교류 협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초청 행사에 참석했다. 동강대는 올 1월 육군3사관학교와 학군교류 협

약을 맺었다. 이날 초청행사에서 동강대는 육군3사관학교 견학, 학교장 주관 만찬 등에 참석하며 교육과 연구, 우수 인재 선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동강대 군사학과 조동권 학과장은 "이번 초청행사를 통해 육군3사관학교와 동반 성장하겠다"며 "군인 요구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신지은 교수

'젊은 사회심리학자상'

전남대학교 신지은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2022 젊은 사회심리학자상'을 수상했다. 신지은 교수는(심리학과)는 지난 2018-19년에도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및 한국 심리학회로부터 소장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어, 신진연구자를 위한 3개의 상을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 교수는 주로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정서 예측 및 판단과 대인 지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외로움의 작동 기제와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빛고을불교대학 1기 졸업식



화엄사가 도심에 개설한 빛고을불교대학의 졸업식이 11일 빛고를 포교원 2층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43명의 졸업생은 지난해 3월 입학해 불교이초교리, 경전 등 이론 강의와 성지순례 등 1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제공>

문화전당-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광 활성화 협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KORAIL, 본부장 지용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광주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ACC 사 진 공모전' 수상 작품 44점을 선보여 역사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스크도 무료로 나눠줬다.



국내어비스 호남본부(본부장 정용진)는 월계지역아동센터(센터장 신미숙)가 해외 한 국가를 지정해 그 국가에 대한 다양한 지문 및 해외아동 1:1 결연을 하는 약속의 시작 프로젝트에 동참해 '좋은 이웃센터'로 함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35 굿모닝 카타르	50 마녀의 게임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각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보 좋아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커튼콜(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 스페셜(재)	00 12 MBC 뉴스 25 일당백집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시간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생방송 오늘 저녁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 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공각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50 100분 토론	00 치열업(최중)
11	30 KBS 뉴스라인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KBS 국악대경연 결선연주회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말괄량이 삤삤
07:15 출동! 슈퍼스타	12:1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딩동댕 유치원	13:50 다크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카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아프리카 버킷리스트, 탄자니아 -펄바 백 배 즐기기>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배낭 기행 2부 울엄마 집으로>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크프라임
09:20 빅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딩동댕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3일(음 11월 20일 癸巳) ☎ 010-9790-8237

<p>3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들라. 48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60년생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행복해지겠다. 72년생 시의적절한 운로나니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84년생 소기의 결실에 따른 만족도가 상당히 높겠다. 96년생 예견했던 바가 실제로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35, 72</p>	<p>42년생 보편성에 기반을 두어야 어느 누구에게나 실득력을 갖게 되리라. 54년생 길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젖혀라. 6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78년생 맹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90년생 절대적인 기준과 소신을 가져라. 02년생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7, 75</p>
<p>37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61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수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73년생 지극한 정성으로써 이루지 못 할 일은 없느니라. 85년생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면역할 수도 있다. 97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01, 84</p>	<p>43년생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55년생 실행하는 기법에 따라서 전진발전하게 될 것이니라. 67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이나 구실만이 난무하고 있다. 79년생 자기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91년생 별것 아니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03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82</p>
<p>38년생 바짝 뒤쫓으면 가까스로 따라잡을 수 있겠다. 50년생 실현할 수 있는 원인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62년생 화는 많고 길조는 적으니 변동을 꾀하지 말라. 74년생 제대로 준비를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86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98년생 적극성을 띠면 훌륭한 성과가 기대된다. 행운의 숫자 : 00, 68</p>	<p>44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56년생 시종일관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고역이 될 것이다. 68년생 함께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지겠다. 80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92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04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4, 94</p>
<p>39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51년생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63년생 상호 간에 연쇄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75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이 이룬다. 87년생 생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99년생 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57</p>	<p>45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45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쉽게 융합할 수 있다. 57년생 주저해 왔던 일에 대한 집착이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라. 69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1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93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3, 81</p>
<p>40년생 표방하는 바와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하늘 땅 차이다. 52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76년생 방심했다가는 약자들이 겹쳐올 수도 있다. 88년생 느슨해진다면 관련한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 줘야만 한다. 00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행운의 숫자 : 21, 93</p>	<p>33년생 투철한 사명감과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45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쉽게 융합할 수 있다. 57년생 주저해 왔던 일에 대한 집착이 나타날 것이니 함께 하라. 69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81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93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13, 81</p>
<p>41년생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유익하다. 53년생 편지가 커지면서 위기를 느끼게 되리라. 65년생 폭넓은 인식은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요체이다. 77년생 기간이 지난 것이라 허더라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 89년생 얼마나 값이 더러나나 관건이 될 것이다. 01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이 겹치리라. 행운의 숫자 : 12, 70</p>	<p>34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46년생 선악과 정사를 가리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58년생 시작되자마자 곧 종결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70년생 생 뻥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달래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82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94년생 동선을 달릴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2, 91</p>
	<p>35년생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처지가 달라진다. 47년생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59년생 발전의 단계에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71년생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나 나중에는 편안하리라. 83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95년생 원인은 내부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라. 행운의 숫자 : 19, 78</p>